



열여섯 살 꽃다운 나이
일본 비단공장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中 하이칭·상하이·하얼빈에서
악몽같은 전쟁 위안부 생활 10년

손목에 점 새겨 의자매 맺고 함께 울었던
순천 언니·광주 언니·목포 언니
모두 파란 별이되어 하늘에 남고
홀로 돌아온 고향에서도 갖은 수난의 인생

“일본 사죄 기다리며 70년을 버텼제”

광복 70주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

<1> 마지막 위안부 피해자 해남 공점업 할머니

‘순천 언니, 광주 언니, 목포 언니’ 공점업(95) 할머니의 핏기 없는 손목에 오롯이 새겨진 파란 점 새 개에 붙은 이름들이다.

꽃다운 열여섯 살 소녀가 ‘장사꾼’에 속아 중국으로 간지 6년째 되던 해 중국 라오닝성 하이칭(海城)에서 만난 ‘언니들’과 의자매를 맺으며 바늘에 먹물을 문혀 새긴 것이다. 27명, 가장 많은 ‘손님’을 받았던 그 일요일 날 밤에 숨죽여 흐느끼 때도 언니들은 막내 곁에 있어줬다. 군인들이 무리를 지어 외출 나오는 일요일에는 함께 두려움에 떨었다. 고향 땅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언니들은 파란 별이 돼 하늘에 남았다. 조국이 해방된 지 70년이 지나 막내의 뼈만 남은 손목에는 ‘병원 등록번호 15-0008933’가 적혀진 종이 팔찌가 채워져 있다.

1920년 7월 19일 해남 연동마을에서 태어난 공 할머니는 아홉 살 무렵 현재의 황산면 집으로 이사를 했다. 당골네였던 조상의 기운을 받은 공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동네 어른의 손길을 봐줄 만큼 야무졌다. 용하기로 소문났던 공 할머니는 정작 자신의 기구한 운명까지는 내다보지 못했다.

열여섯 살 되던 해인 1935년 마을에 양복을 팔수 있게 차려입은 신사들이 찾아왔다. “일본에 있는 비단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은 아버지는 자기 살다는 말을 등 떠밀었다. 도착한 곳은 일본이 아닌 평양의 한 직업소개소였다.



5일 오후 만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공점업(95·오른쪽) 할머니는 지난 2월 병세가 악화돼 해남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 공 할머니를 돕는 해남지역 시민단체 ‘해남 나비’ 이명숙(여·50) 대표가 물었다. “할머니 생신 오는 9월이면 나라이 피겠네?” 할머니는 고향집이 있는 푸른 별판을 한참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해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 할머니가 중국에서 고향 언니들과 의자매를 맺으면서 손목에 새긴 문신.

공 할머니는 이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10년간 중국 해성을 거쳐 상하이, 하얼빈까지 동원돼 악몽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손목을 보면 서 버렸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집에 가야 한다’

1945년 8월 중국인 주인은 “전쟁이 끝났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했다. 공 할머니

나는 고향에 돌아가는 길에 주인에게 받은 얼마의 여비마저 마적에게 뺏겼다. 신의주에서 피난 동포를 만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마을에 돌아와 10살 많은 농부에게 시집갔지만 일년이 지나도 애가 들어지지 않았다. 할머니에게는 두려운 날이었지만 남편은 없는 살림에 염소 한 마리를 과사 왔다. 매일 밤 달을 보며 빌었던 공을 삼심할때가 알아줬을까. 건장한 아들이 태어났다. 공 할머니에게 생긴 첫 번째 기적이었다.

‘위안소’에 다녀온 뒤로 몸이 심하게 약해진 할머니는 아들이 갓난이 때 장중 유치에서 큰 침을 맞았다.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지만 너무 더워 뉘틀에 들어갔다가 온몸이 불어서 3

일 동안 의식을 잃었다. 가족들은 할머니를 상여에 옮긴 뒤 장사를 지내려는데 상여가 갑자기 움직여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기도 했다.

아들이 세 살 무렵일 때 남편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먹여 살려야 하기에 남편이 떠난 지 3년 되는 해 할머니는 재가했다. 하지만 아들은 계부로부터 박대를 받으며 우는 날이 많아졌다. 할머니는 집을 나간 뒤 아들을 홀로 키우며 가난과 대장염 등 질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지난 설 명절 할머니는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면서 목포중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현재까지 해남읍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 ▶2면으로 계속 /해남=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민생사범·교통위반 등 수백만명 될 듯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의 방향을 ‘경제살리기와 국민 사기진작’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과 민생사범,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그 규모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그러나 정치인은 사면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 초안을 만들어 청와대와 막판 조율 중이며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안을 확정하게 된다. 또 정부는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원 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3일 사면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 사기진작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 사면안에는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4년형 중 2년7개월을, 최 부회장은 3년6개월형 중 2년4개월을 복역해 사면요건(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을 충족한 상태다. 사면 명단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됐다.

특별사면안이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그 다음날이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복역 중인 사면대상자들은 당일 곧바로 석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재벌 그룹에 대한 여론의 인식이 좋지 않지만 이번 특사에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연남뉴스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박대통령 대국민 담화

“노동개혁 강력히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경쟁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출신수범을 강조하며 ▲금년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했다. 이어 중단된 노사정위의 조속한 재개와 대타협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두 번째로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중복·과잉기능의 통합 ▲국가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통합 ▲재정정보의 투명명 공개 등을 2단계 공공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교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상무지구에 삼희불낙이 2개인 이유를 아십니까?

삼희식당, 삼희불낙

“삼희식당, 삼희불낙”은 1971년도에 중장로5가에서 김순례 할머니가 상호와 요리를 최초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김순례 가족들의 가업입니다.

삼희불낙이 상무지구에 2개인 이유

광주 상무지구에 삼희불낙이 인근에 나란히 2군데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 최초개발자 김순례 할머니가 직접 운영중인 매장은 이마트 옆의 “원조삼희불낙”입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옆의 삼희불낙은 이혼한 셋째며느리가 운영중입니다.

삼희불낙은 상표분쟁 중

현재 김순례가족과 이혼한 셋째며느리 사이에는 상표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김순례 가문에 며느리로 들어와 살면서 김순례할머니가 개발한 요리와 상호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상표를 빼앗으려고 특허청에 “삼희불낙, 삼희식당”이라는 상호와 로고는 자기가 개발한 것이라고 말도 안되는 등록신청을 한 것입니다. 재혼하면서 “삼희불낙” 상호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계획적으로 “삼희불낙”이라는 이미 마련된 반석을 도둑질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44년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원조 개발자인 척 허위광고를 하고 서울, 인천 등에 점포를 개설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나이가 40세인 사람이 44년 식당업을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순례할머니의 삼희불낙

김순례할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이면 좋은 재료를 사기 위하여 시장에 다녀오고 손님을 접대하고 있으며, 식당업이 아닌 다른 길을 가지 않았으며, 이윤만을 추구하여 사람을 현혹시켜서 장사를 하지 않고 푸짐한 요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현재 나이가 74세임에도 가게를 지키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장인정신이 없는 안 될 것입니다.

김순례할머니의 삶의 전부와 같은 “삼희불낙”을 이혼한 셋째며느리가 자기가 개발한 것이고 원조라며 비인간적이고 패륜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랑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맛집들이 많이 겪는 상기 사건에 대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진실과 도덕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전통을 지키는 맛집 삼희불낙의 창업자 김순례 올림



☎ 062-372-2232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20-2번지 리치니스빌딩 1층



김순례 할머니